BTS '다이너마이트' 그래미도 뚫었다 …전문가들이 본 수상 가능성은?

"유일한 단일그룹 곡·영어 가사 경쟁력 충분"

경쟁자들 워낙 강해 낙관 힘들지만
다른 후보들 모두 협업곡 '차별화'
후보 지명만으로 세계적 위상 증명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작년 그래미 어워즈의 시상자와 올 초 퍼포머를 거쳐 이번엔 수상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이들이 1월 열린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래퍼 릴 나스 엑스(가운데)와 노래 '올드 타운 로드'를 열창하는 모습. LA(미국) | AP·뉴시스

이제 세계의 시선은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수상 여부에 쏠린다. 후보 지명 과정에서 그래미 어워즈의 굳게 닫혀 있던 보수적 성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이 실제 수상한다면 또 한 번 세계 대중 음악사를 새로 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상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세계적 팝스타들을 제쳐라

우선 쟁쟁한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이름을 올린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는 ▲제이 발빈·두아 리파·배드 버니·타이니의 '언 디아'(UN DIA) ▲저스틴 비버·퀘이보의 '인텐션스'(Intentions)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Rain On Me) ▲테일러 스위프트·본 이베어의 '엑사일'(Exile)이 포진해 있다. 모두 세계적인 팝스타들이다.

25일 음악전문가들은 "그래미 후보 지명 자체가 굉장한 이력"이라면서도 "아직 수상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정민재 음악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를 넘어 수상까지 한다면 커다란 이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오를 만큼 강력한 후보이고,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도 '강팀'이다"면서 "제이 발빈도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라틴 팝 장르의 스타로서 지지층이 확실해 위협적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평론가는 "그래미 어워즈는 수상 기준에 매번 변수가 작용해 예측하기 힘든 시상식이기도 하다"면서 "방탄소년단이 보이그룹으로서 드물게 세계적인 활약을 펼쳐 후보에 지명된 만큼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영어 가사·단일그룹 곡 등이 경쟁력"

이번 노미네이트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실히 입증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임진모 평론가는 "쟁쟁한 후보들이 몰려 방탄소년단의 수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래미 노미네이트를 통해 완벽한 세계적 아티스트이자 미국을 비롯한 북미 음악시장의 대표 가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만의 경쟁력이 뚜렷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음악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그래미 어워즈의 가늠자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다른 후보곡들이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협업곡인 것과 달리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유일한 단일그룹의 곡이다. 임 평론가는 "팝 솔로 가수들이 협업을 통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을 공략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온전한 자신들의 곡으로 후보에 올라 남다르다"고 짚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후 처음 내놓은 영어 가사 노래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정 평론가는 "'다이너마이트'의 영어 가사가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미 입성에도 분명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방탄소년단' 3대 음악식 성과

빌보드 뮤직어워즈	아메리칸 뮤직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18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18년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2019년 '톱 소셜 아티스트' '톱 듀오/그룹'(한국가수 최초)	2019년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올해의 투어'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	
2020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20년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2020년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 선정

'방탄소년단 노미네이트'로 본 그래미의 변화

한때 백인 전유물이었던 그래미 세계적 성과·막강 팬덤으로 넘어

음악전문가 '레코드 아카데미' 회원들 투표로 결정
내년 1월31일 시상…방시혁 의장 최종투표 참여

그래미 어워즈 트로피

그룹 방탄소년단이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오른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팝, 록, 댄스, 컨트리, 클래식 등 장르별 주요 부문으로 꼽힌다. '올해의 앨범·노래·레코드·신인' 등 본상(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은 아니지만, 2명(듀오) 이상 멤버가 속한 그룹의 성취를 평가하는 부문이어서 후보 지명만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안긴다. 그래미 어워즈가 이제 케이팝의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친숙해질 무대가 된 셈이다.

●'그래미 회원' BTS, 축음기 트로피를?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프로듀서·녹음엔지니어·평론가 등 1만3000여(2018년 기준) 음악전문가로 구성된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 제정한 상이다. 음악 발전이 '그래모폰(Gramophone·축음기)'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로 명칭을 따왔다.

그래미 어워즈는 모두 83개 부문 후보를 선정, 내년 1월31일(이하 한국시간) 시상식에서 축음기를 형상화한 트로피를 수상자(작)에 준다. 앞서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나온 각 아티스트의 작품을 대상으로 9월30일부터 10월12일까지 심사해 후보를 지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후보곡인 '다이너마이트'를 올해 8월21일 선보였다. 이들은 2월 선보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로 '올해의 앨범' 등 7개 부문, '다이너마이트'로는 '올해의 노래'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4개 부문에 각각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지난해 투표 회원으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의장은 전문가 회원으로 나란히 선정됐다. 각 부문별 후보에 이어 12월7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진행되는 최종 수상자(작) 선정 투표에도 참여한다.

●BTS가 이끌어낸 그래미의 변화

사실 방탄소년단이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과 그래미 어워즈 후보가 되기에 앞서 이미 한국인이 상을 받거나 노미네이트됐다. 클래식 장르와 국악 앨범이었다.

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와 함께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 클래식 오페라 부문 음반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음반엔지니어 황병준 사운드미러코리아 대표가 오페라 '엘머 갠트리' 음반으로 클래식 부문기술상을 안았다. 황병준 대표 역시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월드뮤직과 서라운드음향 부문에 악당이반의 국악 음반 '정가악회 풍류 가곡'이 각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같은 그래미와 한국의 인연 안에서 대중음악 가수로 기록을 썼다. 그러기까지 벽은 높았다.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4연속 1위 및 싱글차트 정상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인기도 힘이 되지 못했다. 비영어권 음악인데다, 미국 주류 음악산업을 이끄는 백인 중심 음악이 아닌 탓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힙합 등 흑인음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등 보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 컸다.

지난해 흑인 래퍼 차일디시 감비노가 '올해의 노래' 등 모두 4관왕을 차지하면서 그래미 어워즈는 변화의 조짐을 드러냈다. 잇단 세계적 성과와 막강한 팬덤 등 방탄소년단의 위상도 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새벽에 잠 안자고 지켜볼 것 같다"…"여한 있다면 BTS 그래미 어워즈"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시상자, 올해에는 릴 나스 엑스와 함께 공연자로 각각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무대에 섰다. 이후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에 대한 열망을 때마다 드러내왔다. 특히 올해 9월 영어 가사로 된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뒤 그래미상 후보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절실함도 커졌다. 이들의 말 속에 그 열망이 담겼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정국·RM·지민(왼쪽부터)이 25일 새벽 2시(한국시간) 온라인 생중계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실황을 지켜보다 '다이너마이트'가 호명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방탄소년단 SNS 캡처

● "그래미에 가고 싶고, 세계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입밖에 꺼내기도 쉽지 않지만, 열심히 달려 보겠다."(슈가·2018년 5월24일 빌보드 뮤직 어워즈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기자회견에서)

● "그래미 가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떨리고 설렌다.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본 기회가 생겨 놀랍고 즐겁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슈가·2020년 2월21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발표 쇼케이스에서)

● "실제 이뤄질지 상상하지 못했다. 긴장되지만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RM·2020년 2월11일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M·슈가 2020년 9월2일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 미디어데이에서)

● "여한이 하나 있다면 그래미 어워즈다. 20년간 생중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후보되면 내년에 한 번만 더 해보겠다."(배철수·2020년 9월14일 MBC FM '배철수 음악캠프')

● "매번 다음 목표로 언급해왔다. 새벽에 잠 안 자고 지켜볼 것 같다. 그룹 관련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RM·제이홉·2020년 11월20일 새 앨범 'BE' 발표 기자회견에서)

● "미국 여정의 마지막은 그래미라고 생각한다. Call Us! Ready!(불러 달라! 준비 됐다!)"(RM·2020년 11월23일 미국 에스콰이어지 인터뷰에서)

BTS "수상 욕심 생긴다…아미팬 여러분께 감사"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첫 그래미 상 후보'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미는 미국 주류 음악계의 가장 견고한 아성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팬 투표로 시상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나 빌보드 차트에 기반한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달리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후보 및 수상자(작)를 선정하는 그래미 어워즈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비백인·비영어권 음악에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날 미국 빌보드가 "케이팝 그룹이 글로벌 팝 무대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며 그래미가 마침내 주요한 문화적 변화를 인식하게 됐다"고 보도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AP·로이터 통신도 "케이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이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그래미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USA투데이는 "현재 이들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그룹이 없는데도 1개 부문에만 후보로 올랐다. 미국 주류 음악계도 케이팝의 엄청난 존재감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LA타임스도 "케이팝 회의론자조차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투어 매진, 스트리밍과 주류 라디오 방송횟수, 경이로운 앨범 판매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번 후보로만 팬들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 1월에는 그동안 오랜 꿈이자 목표로 밝혀왔던 "단독 무대"를 펼칠 수 있을지, 또 음악적 위상을 인정받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지 기대를 모은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신기하고 감격스럽다"면서 "수상 욕심도 생기고 기대된다. 노미네이트 기회를 주신 아미(팬)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